

Tel. 213-739-0403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E-mail : chdailya@gmail.com

THURSDAY, August 1, 2019 Vol. 682

“큰 업적 남길 자신 없지만, 총신대 바르게 경영하겠다”

총신대학교 이재서 총장 남가주 방문
기독교계 언론사 간담회 가져

남가주를 방문한 이재서 총신대학교 신임 총장은 학내 사태로 내홍을 겪은 총신대를 바로 잡을 방안으로 “성경적 진리와 바른 경영”을 내세웠다.

이 총장은 지난 30일 오전 미주 복음방송(대표 이영선 목사)에서 남가주 기독교계 언론사 간담회를 갖고 “(총신대 사태는) 과정의 문제였다. 결과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옳은 성경적 진리가 아니며,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당하지 않았다”며 “(임기 동안) 엄청난 업적을 남길 자신은 없지만, 학교를 바르게 경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두 달 밖에 되지 않았지만, 총장이란 자리에 있으면서 너무나 많은 청탁이 들어왔는데 (총장의 권한으로)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몰랐다”며 “어떠한 부당한 일도 하지 않을 것이며, 4년 동안 이것만 해도 총

신의 문제는 해결되고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그는 “총신대 사유화 과정에서 불법과 비리가 점철되고, 이로 인해 총신대가 사회적 신뢰와 합동 소속 교회와 성도들의 신뢰를 잃었다”며 “총신대 정상화를 위해 교단과의 유기적인 관계 회복, 비정치적이고 학교를 사랑하는 정이사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또 “(그동안) 학교 경영자가 총회라는 엄청난 힘 아래, 교회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며 (학교를) 운영해 왔는데, 소신껏 하려고 한다”며 “총장이 사심 없이, 공의롭게 윤리 경영을 펼치면 주변에서도 진정성을 알아주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재서 총장은 총신대가 직면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학교 정상화를 위한 죄신 의지도 표명했다.



좌부터 이재서 총장을 소개하는 미주복음방송 이영선 사장, 한점숙 사모, 이재서 총장

그는 “지난해 C 등급이었던 교육부의 학력 평가를 올해는 그마저도 받지 못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 정원 감소, 교수 인력 충원 등 어려운 일들을 넘어서야 한다”며 “혹자는 ‘총신대가 바닥까지 내려왔으니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하던데, 학교 내막을 파악

해보니 위기가 계속되면 총신대는 한없이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총장으로서 운영을 잘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이어 “총신대는 합동이라는 교단의 큰 배경 속에서 수많은 노회와 교회가 있다 보니, 학문의 중심이 아닌 정치의 중심지가 되어 외풍에 시달려왔고, 지금

도 마찬가지”라며 “공정·투명·소통을 바탕으로 총신의 실추된 사회적 위상을 회복하고, 철저히 법과 규정을 따르는 원칙 준수로, 교단과 지역교회, 사회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목회자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기사 2면에 계속]

“오늘날 설교 교인들 기억 못해, 원 포인트로 청중과 공감하라”



신성욱 교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신성욱 교수는 인도한 제1차 LA지역 원포인트 강해 설교 세미나가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남가주 LA 소재 가든스위트 호텔(Garden Suite Hotel)에서 열렸다. 카이로스 미니스트리 아카데미(Kairos Ministry Academy)가 주최하고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와 본지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서 신성욱 교수는 성경적이고 효과적인 설교로, 성경 본문의 핵심인 원 포인트로 흘러가는 한 편의 드

라마와 같은 감동적인 설교에 대해 강의했다.

신성욱 교수는 이날 드라마틱한 설교 원고를 작성의 이론과 실제, 인문 고전과 설교, 성경적이고 효과적인 설교 작성 전략을 비롯해 신선한 설교 제목 선택의 중요성, 업그레이드된 최신 예화 활용 등 설교를 변화시킬 다양한 전략을 나눴다.

신 교수는 “오늘날 설교는 성경 본문의 핵심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성경 공부와 큰 차이가 없

는 감동이 부족한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면서 “청중이 다 기억하기도 힘든 복잡하고 추상적인 구시대적인 설교가, 성경구절을 문맥에 비추어 역사적, 문법적, 문학적으로 연구함으로 새 시대 청중들에게 어필되는 새로운 전략으로 설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많은 서브 포인트가 아니라 메인 포인트이자 핵심인 원 포인트”라며 “삼대지 기법에 맞추느라 핵심을 놓칠 것이 아니라, 본문의

핵심을 가지고 드라마틱한 설교를 전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 교수는 또 “설교가 청중들에 게 들리지 않고 기대감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 강단이 오래된 방식 혹은 잘못된 방식을 바꾸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전략을 세우지 않기 때문”이라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적 내용에 예화를 걸들이고, 유머와 수사기법을 가미해 드라마틱하게 설교를 구성하면 청중들의 반응이 즉각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고수익, 안정적인 직업?
- 한국어 잘하시는 분들 도전하세요

매월 첫째주 토요일 개강
연방정부 한국어교사(CIA)
한국어 법정통역사, 번역사
주말반 토, 일 세미나
T:(213)999-4379 info@wpaus.com
3407 W 6th st. #614 LA/LDA:2018047569

그린카피어 리스&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리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이니라

- 주일예배 : 오전 6:00 /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예배 : 오후 5:30
- 금요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213)364-7289, (213)605-1983

월드미션대학교 글로벌 리더십

월드미션대학교 글로벌 리더십 석사과정 Master of Arts [Theology] in Global Leadership

1. 글로벌 사역 현장에서 요구하는 리더십 역량을 개발한다.

2.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이해하고 아우르는 글로벌 리더십을 훈련한다.

3. 글로벌 이슈들을 종합적인 맥락에서 다룸으로써 효과적인 사역을 하게 한다.

가을학기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500 Shatto Place
Los Angeles, CA 90020
(213)388-1000
www.wmu.edu

WORLD MISSION UNIVERSITY
TRANSFORMATIONAL BIBLICAL EDUCATION

“세상에 빛과 소금 되는 인재 양성 요람 될 것”

월드미션대학교 2019년 가을 학기 입학설명회 개최



월드미션대학교 2019년 가을 학기 입학설명회

남가주 지역 한인 기독교 종합대학인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지난 25일 LA 본교에서 2019년 가을 학기 신입생을 위한 입학 설명회를 개최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입학설명회에는 예년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해 월드미션대학교의 높아진 위상을 엿볼 수 있고, 각 학과 교수와 행정 직원들이 입학과 전공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이날 입학설명회에는 자살 예방 상담가이자 한국 CISM연구소 부소장인 이현아 교수가 “자살 예방을 위한 위험신호 이해와 접근 방법”이란 주제로 자살 방지를 위한 유익한 강의로 호평을 얻었다.

한인 신학교 최초로 ATS(기독교신학대학원협의회)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 월드미션대학교는 학사 과정으로 성서학과와 기독교상담

학과, 음악학과, 간호학과, 석사 과정으로 목회학, 신학, 상담심리학, 음악학, 박사과정으로 목회학, 교회 음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한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 WMU 상담교실, 비영리단체 사역자, 유아교육 원장, WMU 바이블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수료증 과정으로 두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미국 본교와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수업을 비롯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29개국에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신학, 기독교상담학 등을 공부하고 있다”며 “양질의 온·오프라인 수업을 통해 정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I-20 발급, 유학생 장학금을 비롯해 목회자/선교사 장학금과 연방 및 주정부 학비 지원과 다양한 학생용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기독교 종합대학으로 특별히 올해 개교 30주년을 맞은 월드

미션 대학교는 설립자 임동선 목사의 “세계는 나의 목장이다”라는 목표와 신념 아래 1989년 3월 27일 설립됐으며, 개신교 복음주의에 입각한 영적 훈련과 학문으로 오늘까지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사,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를 육성하고 있다.

또한 문화와 국경을 초월해 기독교 정신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들을 양성해 미 서부의 대표적인 종합 대학교로 발돋움해온 힘쓰고 있으며, 기독교대학연합회(ABHE), 신학대학원협의회(ATS) 정회원 신학대학으로 신학, 음악, 상담, 온라인 (수료증, 준학사,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이 개설돼, 현재까지 1,005명의 졸업생이 목회자, 선교사, 교회음악사역자, 목회상담가, 평신도지도자로 사역하고 있다.

문의: 213-388-1000

admissions@wmu.edu

김동욱 기자

[1면 아래서 총장 “엄청난 업적 남길 자신 없지만..” 이어]



이제서 총신대 신임 총장

또 자신을 밀알만으로 소개한 이 총장은 “총장 선출 과정에서 ‘시각 장애인 이어 떨게 총장을 할 수 있느냐?’와 같은 사회적 편견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는데, 총

장으로 선출된 후 수많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에게 연락을 받았다. ‘가슴에 맺힌 한이 풀렸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다. 장애인들이 넘을 수 없고, 뛸 수 없었던 사회적 벽을 넘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가진 기대를 끝까지 불들 수 있도록 총장직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1953년 전라남도 순천에서 출생한 이재서 신임 총장은 15

세에 중도 실명한 1급 시각장애인 교수 출신의 총장으로 화제를 모았으며, 총장 임기는 2023년 5월까지이다.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1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16992 Rudeen Lane, Fontana, CA 92336
summitus37@gmail.com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신학교 인가(TRACS, ATS)
•BPPE 신규 및 재승인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1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16992 Rudeen Lane, Fontana, CA 92336
summitus37@gmail.com

앞서가는
젊은스타일이
살아있는곳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 한함.
• 헤어 컬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이스티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컬라 전문점

헤어 컬라

\$40^{up} \$20^{up}

* 단, 컬라만 하시면 \$40^{up}

매직 스트레이트

\$120^{up}

* 단, 컬라만 하시면 \$40^{up}

프로페셔널 웨ла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컬라는 마이스티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웨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남가주 기독교협의회, 남가주 1천 4백여 교회 부흥 위해 기도



충현선교교회에서 진행된 남가주 기독교협의회 7월 순회 현신예배



남가주 기독교협의회 7월 현신예배에서 합심기도 후 뜨겁게 찬양하는 참석자들

남가주 기독교협의회(회장 한기형 목사 이하 남가주 교협)는 지난 28일,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에서 7월 순회 현신예배를 갖고, 남가주 지역 교회의 영적 부흥과 미국의 신앙 회복, 한국의 사회적 갈등 해소와 통합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했다.

이날 예배에서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마 17:1-8)란 제목으로 설교한 민종기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낮아지심과 비우심은 비참한 절망이 아닌, 놀라운 영광을 일으키는 미중물이 된다"며 "사회와 가정, 교회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된, 사명 의식을 가진 우리 각 사람의 변화를 통해 시작

된다" 전했다.

민종기 목사는 이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은 모든 환경이 갖춰졌을 때가 아니라, 비록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이라며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나아가는 남가주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기형 목사 "남가주 교협은 남가주 1,400 교회를 대표하는 연합 기관으로, 남가주 각 교회 방문 현신예배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온 교계가 부흥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며 "각 교회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 세상과 사회를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예배에 이어 참석자들은 교협 총무 안신기 목사의 인도로 미국과 조국의 사회적 갈등 해소와 통합을 위해, 남가주 지역 교회 간신과 영적 부흥을 위해, 차세대와 동성애 극복을 위해 합심 기도했으며, 김회장 목사(말씀새로운교회), 권석기 장로(남가주 교협 이사), 장성호 목사 (Charis mission church)가 대표로 기도했다.

한편 남가주 교협은 "남가주 지역 8.15 기념 연합예배 및 음악회를 오는 8월 11일(주일) 오후 4시, 시온성결교회(담임 최경환 목사)에서 개최한다"고 알리며 남가주 지역 교회의 참여를 당부했다.

김동욱 기자

남상국 목사 내교회 창립, 유튜브로 전 세계 교구 삼다



내교회 창립예배에는 남가주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이 대거 참석해 교회의 시작을 격려했다.

남상국 목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주와 한국, 브라질 등 전 세계에서 예배와 성경 자료를 공유하는 내 교회 창립예배가 지난 27일, 갈보리 선교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열렸다.

남상국 목사는 성경의 연대기와 사건, 배경 등을 알기 쉽게 나타낸 '낫 놓고 기역자 물라도 할 수 있는 쉬운 성경 공부'를 개발해, 요한 계시록과 아가서 성경 공부를 출판한 바 있다.

남 목사는 "12년 동안 많은 교회를 다니며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 세미나를 인도해왔

는데, 2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외부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유튜브 채널을 기반으로 교회를 세워 성경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함께 온 헤받는 교회를 세우게 됐다"고 내교회 창립 배경을 설명했다.

남 목사는 이어 "오는 8월에는 뉴욕과 뉴저지, 워싱턴과 필라, 조지아에서 내교회가 지역별로 창립예배를 드리고, 9월과 10월에는 한국과 베트남, 하와이와 중국, 캐나다 등지에서도 내교회가 창립된다"고 소개했다. 내교회는 남상국 목사가 앞으로 1년 가량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성경 강해를 이어가고, 아가서와 다니엘 강해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남상국 목사는 충남 아산 출신으로 배재고, 연세대를 졸업한 후 도미, 64세에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GMU)에서 목회학 석사과정을 공부했으며, 2014년 67세의 나이로 애너하임에 오픈바이블교회를 개척해 교계에 큰 선교적 도전을 주기도 했다. OC목사회 회장을 역임한 남상국 목사는 현재 남가주 연목회(연세동문 목회자회) 회장을 맡고 있다.

김동욱 기자

얇: 교회오빠'를 통해 전 국민을 올렸던 고(故) 이관희 집사의 신앙 투병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로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이 있는 시선을 통해 삶과 죽음을 마주한 이관희 집사 가족의 믿음의 이야기를 담아내 큰 호응을 받았다.

이관희 집사는 결혼 후 3년 만에 얻은 딸과 아내가 조리원에서 퇴원 하던 날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다.

남기웅 대표는 "복음은 인종이나 나이를 떠나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는데, 고 이관희 집사님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모두 담겨있다"며 "신앙의 유무를 떠나 죽음과 고통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굳건히 하는 시간이 되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영화 '교회오빠'는 앞으로도 한국 기독교계에서 나오기 쉽지 않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새로운 마음, 가족과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작품"이라며 "영화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이관희 집사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영화 배급사 '커넥트피쳐스'는 '커넥트 위드 갓, 커넥트 위드 유엔 미, 커넥트 위드 피플 앤 더 월드'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과 감동이 담긴 컨텐츠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관객을 넘어 세상에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문의 : 714-252-6826

영화 '교회오빠'는 KBS 스페셜 '

김동욱 기자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50만불 간접 투자이민 상담환경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자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시민권 취득
- 추방 재판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213.251.5554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다음과제 미사로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나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22회>

목회자들의 “월드미션” 예배를 다녀와서

열방 선교에 비전을 가진 목사 전도사 및 교회지도자들이 한달에 한번씩 모여 예배와 기도 그리고 선교 비전을 나누는 모임이 있다. 그 모임을 “월드미션”이라 칭한다. 모두가 비전스쿨을 수료하고 매년 이슬람권 선교지로 단기선교를 다녀오는 목회자들이 함께 한다.

엘에이 예향선교교회에서 열린 이번 월드미션에서는 7월에 모리타니를 단기선교로 다녀온 L전도사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단기 선교로 다녀온 B목사의 선교 보고와 메시지 시간이 있었다. 인구 분포 대비로 현격하게 선교사 파송이나 선교 지원에 열악한 지역이 이슬람권 지역이다. 물론 기독교 선교에 대한 반감과 위험적 요소들 때문에 접근하여 복음을 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목사이고 목회자라 해서 선교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선교에 관심이 없고 경험이 없으면 세계선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어떤 선교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모를 수밖에 없다. 월드미션에서는 그런 목회자들을 초대하여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한다.

이번에 모리타니로 다녀온 L전도사는 5명이 한 팀이 되었다. 미주에서 딱 5명만 선발되어 갔다. 단기선교팀이 여려명 들어가면 현지인들의 눈에 쉽게 띠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최대 5명으로 하는데 게다가 모르타니는 나라의 선교 거부와 지구상에서 최빈곤 국가중 하나이고 사막기후의 모래바람이 강한 지역이라서 선교회내에서도 단기선교 참가자가 타국 가에 비해 극소수이다.

L전도사는 간증에서 그 더운 모래사막 가운데서 땀을 짜는 부족하고 마실 물이 없어 힘들어 하는 가운데서도 한 명 한 명 만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영혼들이라는 믿음으로 그들과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조금 친숙해지면 마음을 열어 크리스챤임을 밝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 거절하는 이도 있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고 쫓아내는 이도 있었지만 그중에 한 명이 복음을 관심을 갖고 집으로 자기들을 청하여 가난하였지만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의 기쁨은 실로 “온 천하를 얻은 기쁨”이라 했다. 그 선교 보고를 하며 해 같이 빛나는 얼굴에서 때론 눈물이 흐르고 때론 밝은 미소가 나타나며 그 간증을 듣는 이들에게 ‘우리도 가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하였다.

B목사는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나누며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열방을 나가 비로소 그 땅끝에서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비로소 알았다고 했다. 이번 단기선교의 가장 큰 수확은 자신의 깨달음이라 했다. 처음엔 공포스러워서, 용기가 없어서 자신이 예수 믿는 자라는 말조차도 못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증거하기는 더더욱 어려웠고 그들은 복음 앞에서 무조건 돌을 들어 던질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런데 선교훈련을 통해 몇마디 배운 서투른 그들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반응하고 더 관심을 갖고 종내 눈물로 영접하는 이들이 있는 것을 직접 경험하며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심을 보았다고 했다. 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50이 넘어 이제 깨달았다 고백하는 그 얼굴도 해같이 빛났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는 모인 이들의 기쁨에서 다시 한번 살아 났다.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 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ly@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故 백삼숙 선교사의 발자국을 밟으며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얼마 전 아이티를 다녀왔습니다. 아이티에서의 짧은 시간은 필자의 영혼을 깨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깊숙이 패인 그들의 눈에는 절망과 좌절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티 사람들 중에서 눈빛이 살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월드쉐어 아이티 지역의 김영숙 선교사와 함께 일하는 아이티 젊은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엘 전도사의 미소와 이글거리는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노엘 전도사를 처음 만난 것은 투찌에 마을 월드쉐어 공부방이었습니다. 허름한 가건물에서 훈한 눈을 가진 아이티 사람들은 사이에서 그는 유난히 빛났습니다. 이글거리는 눈은 반짝이고 있었고 얼굴은 광채가 났습니다. 묘한 힘이 느껴지는 그는 유창한 한국말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노엘 전도사는 World Share가 아이티 빈민촌인 투찌에 마을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주임 교사입니다. 그에게는 아이티 아이들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는 아이티 현지인이지만 한국어 실력을 탁월해 한국어로 업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글학교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이티 목사의 아들이고 신학을 공부해서 전도사입니다. 아주 성실하고 신실한 아이티의 젊은이입니다.

필자가 노엘 전도사의 한국말 실력을 놀라 질문을 쏟아 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국말을 잘해요? 어디서 한국말을 배웠어요? 언제 누구에게 배웠어요?’ 저의 속사포 같은 질문들을 들으면서 그는 만면에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노엘 전도사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국말 잘해요? 정말이에요? 저는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토요일

마다 선교사님이 있는 한글학교에 가서 한글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한글보다는 주시는 빵과 과자 그리고 음료수가 좋아서 매주 토요일마다 갔었습니다. 자꾸 가다 보니 한국말 실력도 좋아졌고 한국말도 재미있었습니다. 한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어 친구와 성경을 배우면서 한글이 점점 더 재미가 있었습니다.’

백삼숙 선교사는 한국말을 잘하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등록비를 대주시고 신학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요 신학교에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삼숙 선교사님의 한글학교를 통해서 선교사님의 사랑을 받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희는 백삼숙 선교사님이 너무 좋아요. 저희는 백삼숙 선교사님을 잊지 못해요.’

필자는 백삼숙 선교사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금번 아이티에서 노엘 전도사를 통해서 백삼숙 선교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월드쉐어 아이티 지부장인 김영숙 선교사와 노엘 등등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백삼숙 선교사를 찾았습니다. 백삼숙 선교사님은 수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이 남기신 아이티 사역의 열매들은 텁텁하게 결실되어 있었습니다.

백삼숙 선교사님은 아이티 대지전 전부터 아이티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진 후에도 철수하지 않고 마당에서 잠을 자면서 현장을 지키며 아이티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백삼숙 선교사는 한글 교육과 신학교육을 병행하여 젊은이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백삼숙 선교사는 한글학교를 통해 젊은이들에게 적극적으로 한글교육을 하였습니다. 또 그들에게 장학금 등으로 격려하며 신학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국적 신앙교육으로 양육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아이티 젊은이들이 한글과 신학으로 양육되어 사역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백삼숙 선교사의 아이티 사랑은 선교사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요소요소마다 남아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종종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에서 선교보고를 하며 한국어로 친구를 하는 아이티 젊은이들을 데리고 와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얼른 그들의 항공료와 미국 체류 경비 등을 계산하면서 백삼숙 선교사의 아이티 젊은이들을 향한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아이티 젊은이들을 향한 백삼숙 선교사의 사랑은 선교사님이 돌보았던 젊은이들의 삶에 고스란히 남아 있으리라 믿습니다. 노엘 전도사는 자신의 스승인 백삼숙 선교사님을 이렇게 추억합니다. “선교사님은 아이티와 아이티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신 분입니다!” 이 아름다운 추억의 고백이 백삼숙 선교사의 상급이요 자랑이라고 믿습니다. 부족한 이 글을 선교사님들에게 바칩니다. 오늘도 오지의 온갖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많은 선교사님들!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마음으로 섬기고 나누면 귀한 결실들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어바인 베델교회 한 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 열린다

어바인에 위치한 베델교회에서 8월 2일(금)부터 4일(주일)에 걸쳐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 강좌’가 열린다.

올해로 4년째 맞이하는 이번 신학 강좌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려면’이라는 주제로 정의를 갈망하는 이 시대에 시원한 물줄기 같은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사진으로는 현 총신대학교 이재서 총장을 비롯, 전 합동신학대 조

진모 교수, 현 합동신학대 박덕준 교수, 현 총신대 정승원 교수 등 한국의 내로라하는 신학자들로 구성됐다.

특별히 4일(주일)에는 1부(오전 7시 15분)에는 조진모 목사가 설교를, 2부(9시 15분)에는 이재서 목사, 3부(11시 30분)에는 정승원 목사, 4부(오후 2시)에는 박덕준 목사가 설교

할 예정이다. 한편 오후 3시 20분에는 김한요 담임목사의 사회로 패널



토의가 예정되어 있다.

문의: 949-854-4010

정은진 기자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당뇨의
근본적인
치료

비만의
개선

Cyclo-Z
세계최초
당뇨치료를 위한
생약제제

전립선
질환 개선 및
알츠하이默의
예방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이 없으며 빠를수록 좋습니다.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끌내라”에서 미네랄의 하나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어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진다.

프로지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승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내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에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승문기 박사는 아연이 균형세포의 당대사와 헤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43% (하지절단)
37% (미세혈관병증증)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출신기 박사
* 40년간 당뇨병, 비만, 고혈압, 당뇨병 연구 교수
* UCLA대학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미 연방재활근부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문의 213.434.1170
3020 Wilshire Blvd. #160, LA, CA 90010 www.prouzusa.com / prouzus1@gmail.com

이재서 총장 '총신대 정상화 및 발전 위해 남가주 동문회 협력' 당부



총신대학교 남가주 총동문회 주최 이재서 총장 초청 동문 간담회

총신대학교 남가주 총동문회(회장 김경일 목사)는 지난 7월 29일 용수산 연회장에서 엘에이를 방문한 총신대학교 이재서 총장을 초청해 동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남가주 총신 기수별 대표들은 이재서 신임 총장의 학교 개혁 의지에 박수를 보내며, 미주 후원이사회를 조직해 총신대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남가주 총신 동문들이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동문회장 김경일 목사는 “총신대학교는 한국 교회 장자교단인 합동의 신학교로, 한국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 왔다”며 “총신대가 다시금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신학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신학과 영성의 보고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경일 목사는 이어 “이재서 신임 총장님은 총신 역사상 최초로 비 신학 전공자로서, 최종 총장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되신 것은 총신의 개혁과 변화 의지가 투영된 결과”라며 “총신대가 하루속히 정상화돼, 통합과 발전, 화합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 달

라”고 요청했다.

이재서 총장은 답사에서 “모교의 발전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귀한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 총신대가 재정적으로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려면 일 년에 50억 원가량의 재원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며 “미주에서도 모든 총신 동문들이 학교 발전을 위해 마음을 모아 달라”고 전했다.

이에 총신대학교 남가주 총동문회는 미주 후원 이사회를 조직하고 1004구좌 운동을 펼쳐, 모교 살리기에 물질로 협력하기로 결정했으며 오는 9월 14일(토) 오전 10시, 예수커뮤니티교회 (15246 Barnwall

St. La Mirada, CA 90638)에서 한마음 동문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남가주 총신 동문 화합의 날로 삼을 예정이다.

또한 오는 12월에는 남가주에 거주하는 총신대 출신 음악인들을 중심으로 총신대 후원 음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지윤성 부회장의 사회로 양종석 목사가 기도했으며, 장상근 교수가 특송 했다. 김경일 총 동문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재서 총장이 답사했으며, 올해 89세인 김혜성 목사(총신 1회)의 축도로 마쳤다.

김동욱 기자



총신대 남가주 총동문회 회장 김경일 목사가 이재서 총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평생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장 좋은 조건에 다녀오세요!”



예루살렘 ©pixabay

기독일보가 주관하고 GMS 소속 현지 강태윤 선교사가 인솔해 더욱 믿을 수 있는 예루살렘 성지순례가 오는 9월 30일(월)부터 10월 11일(금)까지 11박 12일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장로, 권사, 집사 등 평신도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성지순례는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도시를 따라 순례의 길을 걷게 되는 이번 성지순례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 믿음의 유산 등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성지순례는 예루살렘 지역 갑 람산, 갯세마네 동산, 베드로, 기드론 골짜기, 마가의 다락방, 베데스다 연못, 채찍 교회 십자가의 길, 주기도문 교회 등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이 배어있는 예루살렘 지역을 방문하고, 요단강 세례터, 엔게디 폭포, 쿰란 공동체 등 사해지역도 돌아본다.

또 드고아 아모스 선지자 고향, 사무엘 묘, 벤엘, 야곱의 우물, 그리실 산, 베들레헴 탄생 교회, 유대 괘야 요단 계곡, 가이사랴 빌립보, 가버나움, 브깃도, 지중해, 갈멜산, 벤세메스, 아둘람

비즈포스트 그룹, 한우리 여행사가 후원하는 이번 성지순례의 접수 마감은 8월 10일(토)까지며, 문의는 기독일보 213)739-0403으로 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크리스천비전신문사가 주최한 기독의료상조회 설명회 및 김도영 박사 초청 목회자 건강 세미나

크리스천비전신문사(대표 이정현 목사)가 주최한 기독의료상조회(대표 박도원 목사 Christain Mutual MED-AID, 이하 CMM) 설명회 및

김도영 박사 초청 목회자 건강 세미나가 지난 26일, 엘에이 한인타운 소재 로텍스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박도원 목

기독의료상조회 설명회 및 목회자 건강 세미나 열려

사는 “CMM은 지난 1996년, ‘비싼 의료비 부담을 기독교인들끼리 나누자’는 취지로 미국에서의 시작돼, 현재 4만여 성도가 참여하는 의료비 나눔단체로 성장했다”며 “집을 서로 지라(갈라디아서6:2)’ 말씀을 모토로 성경적인 삶을 사는 64세까지의 성도들이 참여해, 의료비 나눔과 중보기도로 서로를 도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관으로, 소수 민족 단체로는 유일하게 미 보건복지부 산하 CMS(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로부터 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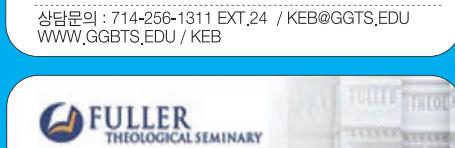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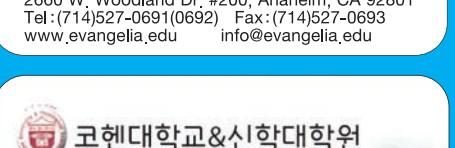
인 받은 의료비 나눔 사역단체”라고 소개했다.

위화조 CMM 홍보부장은 “미국에 살면서 비싼 보험료와 높은 디터터 블로 의료보험이 없거나,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큰 경우 CMM의 프로그램은 월 40불부터 시작하는 저렴한 프로그램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며 “철저히 가입한 성도들의 양심을 신뢰하는 기독교적 운영원칙으로, 보다 나은 의료비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홍보부장은 이어 “CMM은 높은 의료비로 힘들어하는 크리스천들에게 꼭 필요한 대안으로 탄탄한 재정을 기반으로 보험은 아니지만, 보험보다 더 좋은 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있다”며 “회비는 40달러부터 175달러까지로 일반 의료보험에 비해 저렴하지만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크리스천이면 누구나 신분에 상관없이 가입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2019 미주기독대학박람회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 가능

SUMMER SPECIAL SALE



**NEW 2019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or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16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5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ONATA SE**

Lease **\$178** +Tax **or 0 Down \$2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3,4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0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or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ANTA FE SE 2.4L**

Lease **\$218** +Tax **or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6,6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STEVE CHANG



PAUL KIM



MIKE LEE



JUSTIN KIL



CHARLEY JEONG



JAMES PARK



HARLEY KIM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See dealer for LIMITED WARRANTY details.

Assurance



HYUNDAI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

“목사만 아닌 누구나 설교 할 수 있어”

‘교회 세습’ 앤 “본질에서 멀어졌다는 뜻”



조정민 목사.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가 “누구라도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다”며 “목사만 설교가 가능하다는 생각은 목사를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제사장으로 회귀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조 목사는 30일 보도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베이직교회 후계를 묻는 질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기본적으로 제가 떠난 뒤는 하나님께 맡긴다. 저는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는 모델이 아니라, 소그룹 단위의 교회 공동체 하나하나가 교회여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그게 미래지향적인 교회의 패러다임이라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사람들이 목사의 설교에서 벗어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스스로 묵상할 때 목사의 설교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교회를 이루는 두 요소는 ‘말씀’과 ‘성령’”이라고 역설했다.

김진영 기자

‘교회 세습’에 대해선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땅도 아니다. 예수를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며 “그걸 세습하고자 한다는 건 교회가 ‘영성의 교회’가 아니라 ‘제도성의 교회’가 됐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미 교회의 본질에서 멀어졌다는 뜻”이라고 이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또 베이직교회에서 ‘담임목사’나 ‘부목사’라는 호칭 대신 모두 ‘목사’라고만 부른다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해 조 목사는 “교회 안에서 교역자들이 서로 형제·자매가 돼야 진정한 공동체가 탄생하지 않을까 싶다. ‘집사·권사·장로’ 등을 없앤 것도 교회의 직분이 신앙의 목표가 돼선 안 된다는 자극적이고 강도 높은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목사는 “그게 정답이라기보다 지금은 충격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혐오 발언’ 혐의로 목사 체포했던 영 경찰, 결국 보상금 준다

‘부당 체포’ 시인... “표현의 자유, 반드시 보호받아야”



노방 전도에 나선 남성을 저지하고 있는 경찰의 모습. ©EyeOnAntisemitism 인스타그램

올해 초 나이지리아 출신의 전도자를 체포하고 그의 성경책을 압수했던 영국 경찰이 그에게 3,000달러(약 355만 원)의 보상금을 지불하는데 동의했다.

오후호울 일레산미(64) 목사는 지난 2월, 영국 런던의 사우스게이트 투브(Southgate Tube)역 밖에서 전도하던 중 체포됐다. 그가 혐오 발언을 했다며 누군가 경찰에 고소했기 때문이다. 혐오 발언은 영국에서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그러나 런던경찰국은 일레산미 목사가 런던 경찰에 의해 부당하게 체포되고 잘못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 그에게 3,000달러를 보상하는데 동의했다.

그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기독교법률센터(Christian Legal Centre) 앤드레아 윌리암스(Andrea Williams) 대표는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영국법은 거리 설교자의 권리가 더욱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기독교연대’와의 인터뷰에서 “비록 영국법은 대중들을 상대로 한 설교의 자유를 지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찰 관계자들은 이를 불편하게 여기는 누군가의 첫 신고만으로도 설교자의 입을 막아버린다. 그 결과는 자기 겸열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오싹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

적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란, 곧바로 공격적이라는 딱지를 얻거나 침묵해야 할 필요가 없이 모든 종교나 생각에 대해 모두가 비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비평적인 생각은 때로 다른 이들에 대한 미움이 아닌 사랑에서 나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일레산미 목사는 “(런던) 경찰이 성경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나를 체포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고 ‘기독교연대’는 전했다.

그는 “체포되어 집으로부터 멀어진 곳에 있게 된 것이 트라우마로 남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있을 때에도 늘 함께 하셨다”면서 “사우스게이트로 다시 돌아와 거리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영국에 왔을 때, 이곳은 자유로운 기독교 국가였다. 그러나 현재 나와 같은 전도자들이 진리를 말한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있다. 기독교인들과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 특히 정부와 경찰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아버린다. 그 결과는 자기 겸열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오싹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

강혜진 기자

교회 및 선교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주중 영혼의 삶 예배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 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높고 푸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써니김 담임목사

오전 11:00
노부부 예배 오후 11:0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밀도밀 삶 공부 오후 5:00
토요아침예배 오후 9:00

LA 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자녀예배 오전 8:30)
3부예배(자녀대예배) 오전 11:30
대학생부(EM) 오후 2:00
수요봉보기도(주)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 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믿고 예배를 하며 영성적 성장을 통해 영광의 삶을 살고자 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6-2233

장태원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5:30 (월~토)

LA 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521 S. Hill St., LA, CA 90015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후 6:00 (화~금)
Youth예배 오후 11:00 토요연합세미 오후 6:2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8:0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엘리야 김 담임목사

주일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토) 오후 6:00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5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기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1:45
4부예배 오후 1:30 (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을 위에 새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현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성인E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후 11:00 수어청년예배 오후 12:30
천안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회-토 오후 6:00
수요예배 오후 7:00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191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6:00(토)
유초등부 오후 11:00 중고등부 EM 오후 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자용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영어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5:00
3부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후 6:30(화-금)
오후 6:00(토)

미주양곡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민사회와 기정을 섬기는 말씀공동체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213) 267-0030 www.churchla.org

대예배 1부 오전 8:00 새벽예배 저녁 7:3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화)
유수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

정병노 담임목사

새 일 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864-8690, (213) 820-7240 Email: lasehil2011@gmail.com
(5기와 Westmoreland 크너 First Baptist Church 인연 있습니다)

정세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화-토 오후 6:00
유녀부 오후 11:00 중고등부 EM 오후 12:30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영성기상 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6-0685 www.lasahean.com

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예배 오후 7:30
영우부, 유아동, 외 10:50 새벽기도회(화-금) 오후 5:30(화-금)
중고등부 오후 11:00 토요새벽예배 오후 6:00

정인호 담임목사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249-9191, www.lajaj.com

곽건설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영어예배 오후 10:00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예배 오후 7:30
중고등부 오후 10:00 새벽기도회(화-금) 오후 5:30
유녀부, 유아동부 오후 11:00 (토) 오후 6:00

예은장로교회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 745-9997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예배 오후 8:00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마이 밤 기도회 오후 9:00

박은중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김종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후 5:20(월~금)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박효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213) 831-9490

주일부예배 오전 8:00 EM(대.침)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국학교주일 모전 10: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유도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이순환** 담임목사
목요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산,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친구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동부, 라스 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화-토) 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 591-6500 sunhand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갓스월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 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나성교회
2160 N.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 (562) 690-0038

주일부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 세례 받아 함께 일려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s.org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중고등부 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공공부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6:30(토)

뉴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 272-9126 / www.newsongcorona.com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EM(Holy EM) 오전 10:00 오전 6:30(화-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5722 www.eastasian.org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밀蹉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화-금) 5:30(화-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은혜로운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장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일요일 10:00-11:00)
새벽예배 오후 6:00(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00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00 (본성전) 토요일 AM-금 오후 1:40 (교육관)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시막에 강을 내는 교회"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T. (760) 636-2675 / pspkmc.com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도공부 오후 7:30(화)
한국어 성도공부 오후 7:30(화)
한국어 성도공부 오후 7:30(화)
중국어 성도공부 오후 7:30(화)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 (714) 461-6412

주일예배 오전 9:00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00 (본성전) 토요일 AM-금 오후 1:40 (교육관)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 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 예배 오후 1:00 EM 성경공부 오후 7:00
중보기도회(화-금) 오전 10: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1:00
장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일요일 10:00-11:00)
새벽예배 오후 6:00(화-토)

기쁜우리교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현대부 오전 12:30
EM 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배 오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화-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화로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친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ckchurch.org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후 5:30(화-금) 6:00(토)

윤대혁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EM 예배(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 예배(2부)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5:30(화-금)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후 5:30(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밸리체풀
주일 예배 오후 9:30
주일 예배 오후 10:00
금요성경집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 월-금 저녁 5:30(화-금)
토요일 저녁 6:00
EM 월-금 저녁 5:30(화-금)
주일 예배 오후 10:00
금요성경집회 저녁 7:45
1914 Rindge St., Northridge, CA 91326
T. (818) 363-5867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후 10:0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밸리체풀
주일 예배 오후 9:30
주일 예배 오후 10:00
금요성경집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 월-금 저녁 5:30(화-금)
토요일 저녁 6:00
EM 월-금 저녁 5:30(화-금)
주일 예배 오후 10:00
금요성경집회 저녁 7:45
1914 Rindge St., Northridge, CA 91326
T. (818) 363-5867

최혁 담임목사

밸리체풀
주일 예배 오후 9:30
주일 예배 오후 10:00
금요성경집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 월-금 저녁 5:30(화-금)
토요일 저녁 6:00
EM 월-금 저녁 5:30(화-금)
주일 예배 오후 10:00
금요성경집회 저녁 7:45
1914 Rindge St., Northridge, CA 91326
T. (818) 363-5867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한기총 조사위 재정 관련 고발,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는 반박



한기총 조사위 김정환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각종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서 이번에는 재정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한기총 조사위원회(위원장 이병순 목사)는 29일 오전 서울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해 '공금 횡령, 사기, 착복 및 유용' 등의 명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사위 측은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 취임 후 여러 행사를 하면서, 한기총 이름이 아닌 다른 계좌로 후원금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또 사무실 임대료를 수개월 미납하고 직원들 임금도 몇 달간 미지불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전광훈 목사는 29일 임원회 후기자회견을 열고 반박에 나섰다. 그는

이대웅 기자

부울경 기독교 지도자 656명, 시국선언

“현 정권, 분명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로 가는 길”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주최 측 제공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기독교 지도자(목사·장로) 656명이 25일 오전 부산 시청 시의회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특정 단체나 개인이 아닌, 기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발표한 시국선언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운전대를 잡고 지난 2년동안 국민에게 설명도 합의도 없이 끌고 가는 이 길은 분명 그동안 우리나라가 추구하며 달려 온 헌법에 명시된 자유 민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길이 아니”라며 “이 길은 분명 북쪽을 향하는 길이요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이들은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부울경 교회 지도자들은 분연히 일어났다”며 “이제부터 파수꾼의 책무를 충실히 감당코자 한다”고 했다.

특히 “헌법에 보장된 종교자유권에 반하는 심각한 침해 및 압제에 돌입하였다”며 “문재인 정권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둔갑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앞세워 신학대학 기숙사에서 새벽기도를 문제 삼고, 군목들의 병사들에 대한 전도행위와 공무원들의 점심

시간의 개인 신앙행위 금지와 기독교 사회복지시설 및 교육기관에서의 종교 행위를 막고 있다. 이는 앞으로 비단 기독교에만 국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같은 헌법에 반하는 행위는 사회주의 국가와 공산국가에서만 가능한 종교탄압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한국기독교 134년의 역사는 언제나 국민들과 함께하였으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왔다”며 “지금도 전국 방방곡곡의 5만여 교회의 8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번 시국선언문 발표를 주진한 윤정우 목사(연제중부장로교회)는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속절없이 이대로 주저앉을 것 같아 마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며 “역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가만히 있는 것은 직무유기란 생각에 이번 일을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윤 목사에 따르면 그는 7월 초 그와 뜻을 같이 하는 동료 목회자들과 처음 시국선언문 발표를 준비했다. 이후 300명을 목표로 기독교계에 동참을 호소했는데, 불과 20여 일만에 600명이 넘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김진영 기자

‘노 데이팅’ 저자 “아내와 이혼… 더 이상 기독교인 아냐”



조슈아 해리스. ©Covenant Life Church 제공

고 했다.

더 나아가 최근 해리스 목사는 이혼 사실을 알리면서 자신이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밝혀 주변을 놀라게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에 따르면 29일 해리스 목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년 동안의 결혼 생활 끝에 아내 샤넌(Shannon)과 헤어지기로 했다. 그러나 친구로 지내면서 3명의 자녀들을 계속 함께 양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다. 유명한 말로 하자면 ‘해체’이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탈’이다. 내게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린 기독교인의 정의에 따르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에 대한 마음을 열어놓고 싶지만, 지금은 그 곳에 있지 않다”고 했다.

이와 관련 영국 크리스천투데이는 “LGBTQ+ 공동체에 대한 그의 사과와 더불어 그의 이러한 언급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노 데이팅’(I Kissed Dating Goodbye)이라는 책을 출간했던 미국의 조슈아 해리스 목사가 더 이상 결혼 전 데이트나 스캔들 등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 이어, 이혼 사실과 함께 자신이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8일 보도했다.

1997년 출간된 ‘노 데이팅’에서 해리스 목사는 “결혼 전 로맨틱한 관계성을 갖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1:1 만남보다 단체 만남을 주전했다. 또 관계성에 대한 문화적 가설에 도전하고, 사회적 규범에 대한 경고하면서 성경적인 대안을 제공하고자 했다.

그러나 해리스 목사는 20년 이상 지난 2018년 10월 이같은 주장을 철회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결혼 전에는 데이트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 책의 중심적인 개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제 데이트가 관계성의 발전과 파트너의 가장 중요한 성품을 배우는데 있어서 매우 건강한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높은 기준을 세우려는 노력 속에 이 책은 결혼 전 데이트나 키스를 하지 않는다는 성경에 없는 개념을 강조해왔다”

전미복음주의협회, 어려운 목회자들 돋는 캠페인 시작

전미복음주의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NAE)가 경제적 압박에 직면한 목회자들을 돋기 위한 100만 달러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3일 보도했다.

한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목회자 중 절반 이상이 일주일에 50시간 이상 봉사하면서 연간 5만 달러 이하의 수입을 받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부업을 하고 있으며, 아예 사역을 떠나는 이들도 있다고.

‘당신의 목회자를 축복하라’(Bless Your Pastor) 캠페인의

브라이언 클루스(Brian Kluth) 대변인은 “이 캠페인은 교회에서 시간, 재능 등의 달란트를 나누어 목사님과 교회 직원들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축복하는 것”이라며 “육아, 자동차 수리, 저렴한 치과 치료 및 진료 제공, 휴양지 공유, 목회자와 가족들에게 기프트 카드 제공 등을 예로 들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캠페인은 미국 전역의 목회자들과 교회를 위한 초교파 봉사로서, 목회자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돋기 위해 릴리 기금이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일부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강혜진 기자

美 남침례회 총회장 “작년 개척한 교회 지도자의 60% 非백인”

미국 남침례회 J.D. 그리어 총회장이 “지난해 교단에서 세운 대다수의 교회가 유색인종 지도자를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29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J.D. 그리어 총회장은 최근 노스캐롤라이나 리지크레스트(Ridgecrest)에서 열린 흑인교회리더십과 가정 콘퍼런스’(Black Church Leadership and Family Conference)의 연설자로 나선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리어 총회장은 “지난해 세워진 남침례회 소속 교회들 가운데 60%가 백인이 아닌 지도자들에 의해 세워졌다. 또 남침례회 교인들 중 20%는 유색인종”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당신의 교회를 이끌고 계신다. 우리가 공동체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다.

강혜진 기자



그러나 우리는 또 다가오는 왕국의 다양성을 선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최근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

시는 성령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목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리어 목사는 “흑인교회의 특별한 경험에서 오는 지혜가 전체 교회 공동체에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이것이 교회의 다양성을 이끄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당신의 교회를 이끌고 계신다. 우리가 공동체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다.

사우스 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종일이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EV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후 6:00(월~토)
유성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제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종교예배 오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권영국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파송기자,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이호우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후 11:00
3부예배(월~금) 오후 1:30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밤이야 힘과 같으니라 (골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2부예배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visions.org

주일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조은교회

주님앞에서 드리침으로 오봄이어의 기쁨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gcc.org

김우준 담임목사

윤목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
3부예배(월~금) 오후 1:3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교되는 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s, CA 90274
T. (310) 715-9902

주일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
3부예배(월~금) 오후 1:3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이명기 담임목사

O.C. 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2:20 금요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월~금) 오후 5:30
새벽예배(월~금) 오후 7: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 516-9191, 995-5351 john.m9191@yahoo.com

1부(한국어) 오전 8:00 2부(한국어) 오전 11:00
3부(영어) 오전 11:00 한국학교(교) 오후 9:00
주일학교(주) 오후 11:0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국대학생부(월~금) 오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민경업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다시 복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 691-0691

주일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3부예배(월~금) 오후 1:30
토요예배(월~금) 오후 7: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주일학교 오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으로 새울 밤에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주일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동체부, 유초등부
수요성형예배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이 일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호** 담임목사
2부예배(E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외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이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9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 오전 9:45 목요저녁예배 : 오후 7시
2부예배 : 오전 11:00 새벽기도회 : 오전 8:00(화-금)
유니부예배 : 주일 오전 11:0000 세모임 :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714) 525-0191 / www.ebcsc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www.dagmacherschurch.org

다 감사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988-3321, (562) 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행복한 동행!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성서 오전 9:30(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9:00 EM 예배 오전 9:0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어,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후 12:30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 749-7770 www.saemm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종교동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C대학원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더불어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30 청년부 예배 오전 6:00(토)
4부예배 오전 11:30(청년 한국어) 청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00
FAME 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인터넷 생방송예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예배(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어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상경공부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7: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50
수요예배(영어) 저녁 8:00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 (714) 646-9259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영어 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686
T. (714) 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 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u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1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UNG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문서/신문/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홍콩 시위대의 모습. ©AFP 보도화면

'백색 테러'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 곳곳에서 시위 나서

지난 주 발생한 '백색 테러'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 11만 여명이 29일 새벽까지 시위를 벌였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홍콩 시위대는 위엔룽 전철역에서 발생했던 백색 테러에 항의하기 위해 위엔룽 전철역 주변에서 시위를 벌였다.

홍콩 경찰은 시위를 금지했으나 이날 시위대는 시위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이 체포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28일 오후 3시경 송환법 철폐와 백색 테러를 규탄하기 위한 집회가 홍콩 도심 센트럴 지역의 차터가든 공원에서 열렸다. 주최 측은 차터가든에 쌈원기념공원까지 행진도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를 불허했다고.

시위대는 이날 오후 4시 경 코즈웨이베이, 완차 등 여려 곳으로 흩어져 시위를 진행했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성완 지역에 있는 중령판 건물로 향해 충돌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다. 이들은 중령판으로 가는 길목에 있던 경찰과 대치했다.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자, 경찰은 오후 7시 경 최루

탄을 쏘며 본격적인 시위대 해산에 나섰다. 이에 시위대는 격렬하게 저항했으며 일부는 인근 공사 현장의 비계를 뜯어내 무장하기도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정 무렵까지 홍콩의 도심 곳곳에서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벌어졌으나 자정이 이후 시위대가 귀가하면서 평온을 되찾았다. 이 매체는 시위대가 홍콩 주재 베이징 연락사무소를 목표로 한 이유는 지난 21일 밤 시위 때 위엔룽 역에서 백색 테러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지난 21일 밤 위엔룽 전철역에서 흰옷 상의를 맞춰입은 100여 명이 몽둥이를 들고 역사 안으로 날뛰었다.

이들은 전철에서 내리는 시위대와 시민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렸으며, 정차한 전철의 객차로 피신한 시민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했다. 객차 안에서 많은 승객이 비명을 지르는 등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임산부, 취재 기자 등 45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이 시위대를 공격할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경찰은 신고를 받고 사건이 발생한 지 30분 만에 도착해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강혜진 기자

美 루터교 “창조는 6일 동안” 결의안 통과

제67회 미국 루터교 미주리 시노드 총회가 20일부터 5일간 미국 플로리다주 탐파에서 열렸다.
©National LCMS Convention

미국 루터교 미주리 시노드(Lutheran Church-Missouri Synod, LCMS)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신념을 확증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루터교 미주리 시노드(교회 회의)는 23일(현지시간) 미주리에서 열린 제67회 정기총회에서 ‘성경적 6일 창조의 고백’(To Confess the Biblical Six-Day Creation)이라는 제목의 결의안 5-09A를 수용하기로 했다.

결의안은 “우리는 자연일(natural days)의 기간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날이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미 선포되었다고 고백한다”고 밝혔다.

또 “첫번째 인류로서 아담의 창조는 ‘역사적 사건’이며, 우리는 진화론의 주장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신학과 교회 관계에 관한 위원회’(Floor Committee 5 on Theology and Church Relations)에 소속된 아담 쿤츠(Adam Koontz) 목사는 종대들에게 “5-09A 결의안은 특히,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관해 말하기 어려운 때와 장소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실체를 확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이 통과되기까지 논쟁도 있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 여성 종대는 “자연적”이라는 말은 ‘하루 24시간’을 암시하고 있다”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하루 24시간,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종대도 “결의안에 사용된 ‘자연

적’(natural)이라는 말의 의미가 정확하지 않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결의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날(days)은 아침과 저녁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자연적”이라는 말은 성경의 언어들로도 정의된다”고 답했다.

이후 ‘자연적’(natural)이란 단어를 삭제한 수정안이 올라왔으나, 참석자들은 찬성 309, 반대 662로 이를 부결시켰다.

이 결의안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신앙과 과학에 관한 도움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인류의 기원 논쟁에 관한 이전 결의안에서 나온 것으로 이 가운데 1932년에 수용된 결의안도 포함돼 있다.

당시 결의안은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가르친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방식과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가르친다. 특히 창세기 1, 2장에서 그분의 전지전능한 창조의 말씀에 따라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가르친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주신 창조의 일을 부정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교리를 거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실 때에 어떤 사람도 이에 동참하지 않은 상태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책임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당신의 기록에 대한 신뢰할 만한 창조의 설명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전적인 확신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나와 모든 생명체를 만드셨다고 믿는다’는 루터의 교리문답서대로 고백한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마음의 그릇에 보배를 담으십시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성경 암송은 마음의 그릇에 보배를 담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릇인 것처럼 우리 기억도 그릇입니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허성준 신부의 글이, 그릇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거듭 생각납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오물을 담은 그릇은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황금을 담은 그릇의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모두가 기억이라는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 허성준 신부

성막의 지성소에 있는 법궤 속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개의 돌 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짜 난 지팡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모두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준 참 떡을 의미합니다(요 6:31-33).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만на, 즉 생명의 떡이십니다(요 6:35). 우리 마음은 생명의 떡, 말씀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요 1:12).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롬 5:1; 갈 3:24).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요 1:14).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생명의 말씀을 모시게 되었습니다(요일 1:1). 예수님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골 2:3). 무엇보다 예수님은 보배 중의 보배입니다. 바울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모시

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고후 4:7 상). 우리가 보배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순간 우리도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신 26:18).

보배로운 백성은 마음에 보배로운 말씀을 담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눅 6:45). 예수님은 마음에 무엇을 쌓아두느냐에 따라 우리 언어가 결정된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과 함께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언어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언어가 우리 미래를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인간에게 언어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언어가 우리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가 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무슨 말을 할지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말에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감화력이 있습니다. 영향력

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언제, 누구에게, 어디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놀라운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언어가 바뀌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의심하는 말, 비방하는 말, 더러운 말은 우리 인생을 어둡게 만듭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은 우리 인생을 밝게 만듭니다. 성경 암송은 밝은 미래를 위해 보배로운 말씀을 마음에 쌓아 우리의 말을 바꾸는 영적 훈련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되면 우리 영혼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경환 시인의 『호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호수가 산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은/ 깊어서가 아니라 맑아서이다.

우리가 주님을 안을 수 있는 것은/ 가슴이 넓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맑아서이다. 오 주님! 내 영혼을 맑게 하소서/ 내 영혼을 맑게 하소서.” 유경환

성경 암송은 보배로운 말씀을 마음의 그릇에 담는 것입니다. 말씀의 보배를 필요할 때 꺼내어 사용하십시오. 기도할 때 사용하십시오(요 15:7).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암송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말씀의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그릇에 담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짧은 한 절의 말씀부터 암송을 시작해 보십시오. 시편 한편을 선택해서 암송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보배처럼 여기는 사람과 교회를 보배처럼 여기십니다. 우리 함께 보배로운 말씀을 늘 암송합시다.

기도는 곧 현실입니다

박성근 목사
남주새누리교회

존 비비어가 쓴 “비범한 삶(Extraordinary)”에 보면 이런 실화가 나옵니다. 2002년 콜로라도 주에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한달 이상에 걸쳐 13에이커의 산을 불태우는 끔찍한 재해였습니다. 수 많은 집들이 잿더미가 되고 엄청난 재산 손실이 났습니다. 존 비비어의 사역본부도 불이난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본부를 이사한지 1년 밖에 안되었고, 새롭게 일을 시작한 직원들이 한창 열정을 가지고 헌신할 때였는데 그만 산불이 난 것입니다. 뉴스에 의하면 불길이 사무실에서 11킬로미터 거리까지 와 있었습니다. 시간당 1.5킬로미터의 속도로 달려오는 것이기에 몇 시간 후면 이곳도 잿더미가 될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존 비비어는 이 삿짐 트럭에 짐 싣는 것을 멈춰가 한 후 전 직원을 회의실로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칠판에 다음의 성경구

절을 적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 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마 11:22-24)

이 말씀대로 해 보자고 했습니다.

칼럼쓰기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주보에 칼럼을 쓴 지가 약 25년은 넘은 듯합니다. 그런데도 매주 돌아오는 칼럼 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처음에는 글을 제대로 쓸 줄 몰라 힘들었습니다. 어휘력도 부족하고 글의 묘사가 미흡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아직도 들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글의 소재를 찾는 것입니다. 저처럼 매주 칼럼을 쓰시는 한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중 하나를 칼럼의 소재로 쓴다고 합니다. 그만큼 칼럼을 쓰려면 충분한 묵상과 사물을 깊이 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영화나 신문 기사를 읽을 때도 영적인 진리를 반추하는 부분을 읽어내고 그 것을 글로 옮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매일 큐티를 하면서 익힌 묵상 연습은 칼럼을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수많은 일이 지나가는 그 시간에 내 생각과 감정을 스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기록하지 않으면 그냥 잊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것 아닌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값진 시간이 있고, 말씀과 기도 속에 던져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원하게 내리는 장대비 혹은 산

들산들 부는 봄바람에도 주님의 호흡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구르는 낙엽에서 느껴지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종이 위의 활자로밖에 안 보이는 글자에서 때때로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모습을 상상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평범한 24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감동과 눈물 그리고 깨우침으로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칼럼 쓰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곗바늘이 움직이는 크로노스에서 일기장에 남기고 싶은 시간, 카이로스를 남기는 것이 칼럼을 쓰는 이유입니다.

기억 상실증은 병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잊어서 좋기도 하지만 우리는 좋았던 것을 너무 쉽게 잊는 경향도 있

습니다. 저는 흘러가는 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선물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중에 몇 개 만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기억한다면 더 많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칼럼을 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좀 더 민감하게 기억하는 습관을 기른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색다른 경험을 글로 담아내면서 ‘은혜 기억 상실증’이라는 별을 조금씩 극복해 가려고 몸부림쳐 봅니다. 정말로 괴로웠던 기억을 지우는 심리치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는 괴로웠던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은혜와 감사의 기억으로 대치하는 것입니다. 교회 주차장에 꼼꼼 못하고 박혀 있는 나무를 보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할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은 푸른 옷을 갈아입고 힘 있게 좌우로 손짓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나무는 더 생생력 있는 모습입니다. 움직일 수 없다고 무능하다 말하지 말고, 손짓하는 나뭇가지를 보며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담임 목사 청빙

아리조나 피닉스 동쪽에 위치한 갈보리 한인 교회
(Calvary Korean Community Church)에서는 20년째
담임 목회를 해오신 조정기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어
후임으로 오실 담임 목사님을 청빙 합니다.

■ 자격

1. 정규 신학대학, 또는 대학원이상 졸업하신 분
2. 교단 가입에 문제가 없으신 분
3. 미국 체류에 법적인 문제가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1. 이력서
2. 목사 안수 증명서
3. 최종 신학교 졸업 증명서
4. 자기 소개서
5. 최근 설교 CD
6. 추천서

■ 제출 방법

1. 청빙 위원회 이메일 (jungeun.park1014@gmail.com)
2. 우편 (430 N. Lewis St., Mesa AZ 85201)

■ 제출기한 : 2019년 12월 31일(화)

■ 연락 : T.(480)435-0998

*청빙 절차에 따라서 서류 심사 후 개별 통지 합니다.

 **갈보리 한인 교회**
Calvary Korean Community Church

전도사 청빙

**뉴저지 은혜와 사랑교회
(미국장로교, 담임:소기범 목사)에서
아동부 전도사님을 청빙합니다.**

- 지원자격 : M.Div. 학위 소지 혹은 재학 중인 분
- 급여 : 상의 후 결정
- 사역내용 : 아동부 목회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보내실곳 : jcworld21@hotmail.com
- 문의 : 목회부장 T.(201)522-3011


은혜와 사랑교회
GRACE & LOVE CHURCH

“영성이 깊은 교회, 세상을 위한 교회”

55 Magnolia Avenue Tenafly, NJ 07670

Tel: (201)567-3535

www.gracelovechurch.org

LOS ANGELES MONTEREY PARK GOLF ACADEMY

일반인·주니어를 위한
특별 맞춤 골프 프로그램

■ 대상 : 일반인·주니어 레슨(8살~18살)

■ 시간 : 평일 레슨(화~금), 주말 레슨(토)

■ 장소 : Monterey Park Golf Club

(LA한인타운에서 차로 15분 거리)

- 골프 선수를 꿈꾸는 꿈나무, 대학진학 전문상담
- PGA 투어 출신 프로가 체계적인 스윙 교정, 속 게임, 필드 레슨까지



Robert Sul

University of Las Vegas Golf Team's 2 Times 백상배 챔피언
2006 KPGA TOUR
AJGA all-American
Golf Digest Top Ten Amateur



Kenny Kim

Named 2004 Gahr High School Athlete of the Year
UC Irvine Men's Golf Team from 2004~2008
2006 PGA Tour Buick Open at Torrey Pines
2010 U.S. Open at Pebble Beach
2010 PGA Tour Reno-Tahoe Open
2011 Long Beach Open(T2nd)



T:(562) 383-3566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훼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n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제단/직접제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CD Printing

CD정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한인타운 한의원

급매 크기 1,150 sf

문의 : (213)381-7575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 213.383.1230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해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업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국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매달 2커플에게 드리는 야외촬영(2시간) Free

계약에 관계없이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께
무료로 촬영해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영정사진, 가족사진

Scott Kim Studio
213.810.4000



scottkimstudio@gmail.com
Kakao talk ID: scottkimstud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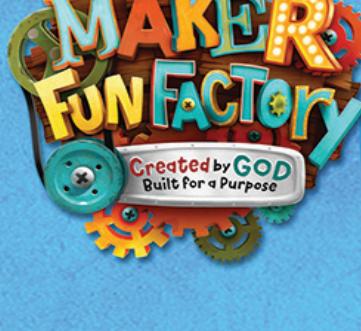
목소리 재능 기부

현재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우 스캇 킴입니다.

교회에서 성우 같은 전문적인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LA인근 지역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으니
연락주세요.

한인교회를 위한 SUMMER EVENT



VBS T-Shirt

Full Color Printing

Adult \$ 7.20

Kids \$ 5.50



그 밖에도 VBS를 위한 물티슈, 가방, 배너, 포스터, 초대장
디자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CD PRINTING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프린트CD+CD봉투+라벨] 포함입니다.

BANNER



인기 상품
A형 스탠드배너

\$ 65

Stand X-Banner

\$ 140

Retractable Banner

거치대포함
사이트에서 샘플선택



3170 E. 11th Street, Los Angeles, CA 90023

323.265.0244

E-mail: junimmedia@gmail.com

예장 통합, 동성애 옹호 혐의자 '목사 안수' 골머리

5인위, "언행 도 넘었다"며 '불합격' 입장... 공은 고시위로

'무지개 퍼포먼스' 당사자 · 전 총학생회장 응시
SNS 등에서 보인 언행으로 '동성애 옹호' 혐의
고시위, 합격자 발표 연기... 5인위 '불합격' 결론

최근 목사고시에 응한 두 명의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생들의 '동성애 옹호' 혐의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이른바 '무지개 퍼포먼스'에 이어 예장 통합 교단이 다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제가 된 학생들은 '무지개 퍼포먼스'의 당사자(이하 A군)와 장신대 전 총학생회장(이하 B군)이다. 현재 둘 모두 장신대 신대원에 재학 중이다. 이들은 지난 6월 6일 목사고시에 응했다. 원래 신대원을 졸업해야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만, 이들은 군종목사(군목)시험에 합격한 뒤 군목 후보생 자격으로 시험을 봤다.

총회 고시위원회(위원장 정병주 목사)는 당초 지난 24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 두 학생들이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합격자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통합 측은 지난해 제103회 정기 총회에서 '동성애 행위자, 동성애 행위를 조장하거나 교육하는 자는 교단 목사고시를 치르지 못하도록' 결의했었다. 이런 자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단의 목사가 되어선 안 된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A군과 B군은 장신대 안팎에서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비판을 강하게 받고 있는 이들이었다. 이에 따라 총회 임원회는 고시위가 청원한 '2019 목사고시 합격자 보고 및 허락 건' 결의를 잠정 유보하고, 5인 위원회를 만들어 이 문제를 다루도록 했다.

록 했다.

이 위원회에는 고시위원장 정병주 목사와 총회동성애대책위원장 고만호 목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25일 모여 두 학생의 처리 문제를 논의한 끝에 A·B군이 동성애를 옹호한다고 보고 이들을 이번 고시에서 불합격 처리해야 한다고 입장 을 정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건, 두 학생들이 그 동안 SNS 등에서 보여준 언행이 동성애 옹호가 아니라고 하기엔 그 정도가 지나쳤다고 위원들이 판단한 때문으로 알려졌다.

'동성애 옹호' 혐의, 무엇 때문인가?

A군은 무지개 깃발을 들고 교내 채플 십자가 아래서 사진을 찍은 '무지개 퍼포먼스' 말고도 지난 2017

년 '동성애·현장이 답하다-목회 현장에서 만난 성소수자들의 신앙과 삶 이야기'라는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준비했던 '암하아레즈'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당시 강연회는 동성애 옹호 논란을 일으켜 결국 교내 강연이 취소됐었다. 또 교내 다른 동아리의 '반동성애' 세미나를 SNS에서 비꼬는가 하면, 지난해 교

단 총회의 동성애자 및 그 지지자의 목사고시 응시 제한 결의를 비웃는 듯한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B군은 SNS에 "왜 유독 동성애에 대해서만 죄다 아니니를 단정지으려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죄

가 하나님 뜻에 벗어나는 거라면 그걸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성애는 죄이지만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게 아직까지 이해는 잘 안 됩니다만." 등의 글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해 11월 그가 총학생회장일 당시, 총학생회는 교내에서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 소장을 강사로 초청해 '인권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소장은 "미국에서 유학하며 처음으로 무슬림과 성소수자를 만났다"며 "(이들에 대해) 혐오에 기반한 생각들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하는 등 역시 동성애 옹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본지는 B군에게 전화로 입장을 확인하려 했으나 그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일단 임원회는 고시위에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을 요청했다. 고시위는 오는 8월 6일 실행위원회를 열고 이를 논의할 계획이다.

문제는 최근 동성애와 관련해 나온 단호한 총회 결의와 이번 사건에 대한 5인 위원회의 '불합격' 입장에도 불구하고 "총회 임원회와 고시위가 두 학생을 불합격 처리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 특히 A군의 아버지는 교단 정치권의 유력 인사로 알려져 있다.

교단 한 관계자는 "지난 102회와 103회 총회에서 있었던 동성애 관련 결의는 우리 총회가 동성애에 대해 얼마나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한국교회와 사회에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며 "그러나 이런 총회

무지개
언약의 백성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좋아요

공유하기

지난해 장신대 한 학생이 자신의 SNS에 올린 소위 '무지개 퍼포먼스' 게시물
© 해당 학생 SNS 캡처

입장과 견해를 달리하는 일부 교단 인사들이 두 학생을 옹호하며 친동성애 진영의 소위 '인권화' 논리를 교단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는 "총회 임원회와 고시위가 여기에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지 않고 만에 하나 두 학생을 합격처리한다면, 앞으로 모든 동성애 옹호자들이 인권화 논리를 들이대며 교단 목사가 되려 할 것"이라며 "교단 내 모든 목사와 장로, 성도들이 이번 사건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 총회의 입장은 동성애는 죄이고 동성애자들은 회개해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 반대'를 말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일부는 이를 교묘하게 비틀어 동성애 반대를 혐오로 규정한다. 그렇기에 이들이 말하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 반대'는 우리 총회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오직 예수'로 만난 옥희 권사-홍수환 장로, 재결합 과정 고백

옥희 권사와 홍수환 장로가 23일 KBS1 교양프로그램 '아침마당'에 전파를 탔다.

과거 기독교 방송을 통해 "오직 예수"로 만난 부부"라고 간증했던 두 사람은 이날 방송에서 '긴 이별과 운명적인 재회가 부부에게 가르쳐 준 것"이라는 주제로 1978년 이혼했다가 1995년 재결합한 긴 러브 스토리를 전했다.

옥희 권사는 "저는 운동을 좋아했는데 권투는 싫어했다. 약만적 운동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쩌다 이 사람을 만나 살게 됐다"며 결혼 과정을 전했다. 그러나 코뼈와 앞니가

부러지는 등 과거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게 됐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옥희 권사는 재혼 과정에 "우리 딸에게 아빠를 만나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다시 만나니 홍수환이 먼저 재혼을 얘기했다"고 했다. 그러자 홍 장로는 "16년 헤어져 있으면서 제가 좀 정신 차린 것 같다"고 했다.

한편 홍수환 장로는 4전 5기로 세계 챔피언을 획득했다. 그는 과거 기독교 방송을 통해 "시합 자체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하신 일"이라고 간증을 했다. 그는 "내

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으로 이겼다. 권투 선수라고 다 보고 때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절 이기게 해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홍 장로는 "세계 챔피언이 되고 교단이 들어왔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교단인데, 교단 때문에 통란 챔피언이 못 됐다"며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영혼의 평안을 갖는 단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또 홍 장로는 "이제 거듭 났으니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해 복싱챔피언에서 '복음챔피언'으로 불리기도 했다.

김신의 기자

모집 과정

학사과정

신학사
선교학사
기독상담학사
기독교육학사

석사과정

교역학석사
신학석사
선교학사
기독상담학석사
기독교육학석사

박사과정

목회학박사
신학박사
선교학박사
기독상담학철학박사
기독교육철학박사

나실인의 사명 1

사사기 14:5-14



나실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 뜻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거두어들이신 백성에게는 반드시 용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를 택하시고 구속하셔서 받아들여 일군으로 삼으시기까지는 그 백성을 두고 반드시 이루어 내셔야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기 마련이고 그 일은 스가랴 4:6에 "...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하신 말씀과 같고, 사도행전 1:8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하신 말씀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을 보면 삼손이 태어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아이를 임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내에게 나타나서 "보라 네가 본래 임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임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려 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삿 13:3-5)"고 말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사기 13:24-25에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삼손이라 했으며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을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삼손이 자라나서 실질적으로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어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성령을 충만히 채워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현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실현되기를 축원합니다.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삼손은 사명감이 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명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일어준 것같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아귀에서 해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딥나는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사사기 13:1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

이 다시 여호와의 목적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십 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불이시니라"는 말씀처럼 20여 년 전부터 블레셋이 쳐들어와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삼손이 생각하기에는 이 딥나를 되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딥나로 내려가다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부모에게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부모는 "네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며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 14:4절과 같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하고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합이었습니다.

사사기 14:4 하반절에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는 말씀을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법을 어기게 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해방시키려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삼손이 여자를 이용하여 이스라엘 해방운동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일 뿐입니다. 결국 그 부모가 이를 허락하고 함께 딥나로 내려가며 생긴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5절의 포도원은 교회, 즉 국가 단위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어린 사자는 블레셋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들이 점령하고 있던 블레셋을 사자와 같이 두려운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포도원에 이르니 사자가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실인으로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딥나로 내딛었는데 그 사명 감당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위협을 가해오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자리 잡고 행세하는 사자를 죽여 없애야겠다는 사명감에 불타 맨주먹으로 사자와 대적하기 시작하자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맨손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사자를 죽여 죽였습니다.

이것은 나실인으로 택하고 구속한 이가 하나님의 시고 삼손에게 사명을 맡긴이도 하나님의 시기에 사명감만 투철하다면 그것을 능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심을 확인시켜 주신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포도원을 장악하고 있는 사자를 죽

인 것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블레셋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예조(豫兆)와도 같은 것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삼손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다시 딥나에 가면서 자신이 죽인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고 그 꿀을 취하여 먹고 그 부모에게도 먹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꿀이 어디서 났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풍속에 따라 칠 일간 삼손의 아비가 블레셋으로 가서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고 삼십 명이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어 "잔치하는 칠일 동안에 너희가 가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베옷 삼십 벌과 걸옷 삼십 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삼십 벌과 걸옷 삼십 벌을 줄지니라"하고 그들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며 자신이 죽인 사자를 일컫는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삼 일이 되도록 풀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의 아내를 협박하여 삼손에게서 답을 알아내게 합니다. 결국 제 칠 일 해지기 전에 삼손에게 그들은 정확한 답을 말하게 되고 삼손은 뒤늦게 깨닫고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며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삼십 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웃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

게 주었다고 했습니다(삿 14:19-20).

여러분들은 모두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라는 관계는 이 지구 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이지만 남자와 여자의 영적 소속이 분명히 다를 때는 신앙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진리의 기밀을 보안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편인 삼손은 하나님의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블레셋에 속한 여인으로 영적으로는 상반된 입장의 사람이었기에 사명에 열중하지 못하게 되고 여색에 빠져 신세를 그르치는 폐단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영적 소속이 달랐던 여인임에도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 이용할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삼손의 그릇된 계산이 폐단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부터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이의 사람들보다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정통한 신앙을 변질시키고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 받고 구속받은 나실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 또한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길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과정으로 성취시켜 드려야 합니다. 삼손과 같이 사명 성취를 위한 목적으로 그릇된 생각과 방법을 사용하여 부끄러움을 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오후 4시30분/동부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동부 오후 9시	AM1310 허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화요일 오후 7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미국 방송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https://www.youtube.com)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킬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 리프팅 라인 ★ 부분 지방분해 S라인
[4회 \$999] [8회 \$999]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7~25lbs

- ✓ 손가락
- ✓ 발가락
- ✓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배째는 숙면제거약
먹으면서 채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빼지는 약

\$50
한달분



"만성두통, 양쪽 어깨 통증, 뒷목 땅기고 귀울림(이명), 어지럼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슥거리고, 끓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한쪽 얼굴이 갑각이 없거나 눈과 입 주위에 경련, 손과 팔이 저릿저릿하고 시큰거리는 마비증, 턱관절 장애 T.M.J."

교통사고 전문병원

-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알러지, 콧물, 코막힘, 눈가려움증, 천식
- 서해부 통증(사타구니)
- 치아 미백 파우더(3달분 \$60)
- 미용점, 아토피, 각종 피부병
- 수족이 얼음처럼 냉한 분
- 발뒤꿈치 통증, 다리 쥐어 cục
- 염증 통증(협통)
- 10일 이상 자궁출혈
-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 자궁이 내려앉는 증상

- 치질(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
- 자궁 불혹이나 통증(월경통, 하혈)
- 오심경, 쇠골 심경통,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 안면 신경마비, 증증, 심근경색, 지독한 어지럼증
- 각종 위장병, 불면증, 핫플러쉬, 불안초초, 식은땀
- 갑상선, 당뇨병, 여드름
- 다리가 저리고 땅기고, 무릎통증
- 골프 엘bow, 테니스 엘bow
- 빨간 코, 붉은 얼굴, 머리 속 두드러기
- 자궁 근처에 불혹, 근종 수술 암해도
- 몸 전체에 밖으로 나온 혹이나 지방종
- 구연산 캡슐 취급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영선한의원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토 10시 ~ 2시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7와 아드모아)

일본 미워하던 감독, '용서' 위한 영화를 만들다

[인터뷰] '용서를 위한 여행' 이성수 감독(上)

지난 2013년, 원주민들의 '용서'를 다룬 영화 '뷰티풀 차일드'는 큰 반향을 일으키며 국내 300회 이상의 상영회를 넘어 일본교회 초청으로 도쿄, 요코하마, 후쿠시마, 오사카, 고베, 교토 등에서도 상영회를 갖게 됐다.

이어 2017년, 일본을 용서하기 위한 한국인들의 여행을 담은 영화 '용서를 위한 여행'이 제작되고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됐다. 17일 사당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이성수 감독은 "저 역시 일본을 미워하던 사람"이라며 "역사는 잊지 말아야하지만, 결국은 용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영화를 제작한 이성수 감독은 한양대 연극영화과 출신으로 충무로에서 영화 감독으로 활동하며 한국 연극계에서 젊은 연출인 3인에 선정되고 대종상 영화제(1991)에서 각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전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사가 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영화계로 돌아왔다. 수년 전부터 시작된 그의 용서와 화해를 위한 여행, 그 이야기를 들어봤다.

- 어떻게 '용서를 위한 여행' 제작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일본을 미워하던 사람인데, 전작 '뷰티풀 차일드'를 만들고 일본에서 계속 상영 집회를 갖게 됐어요. 일본교회를 방문하고 사람들을 만나니 '우리랑 같다'는 것을 느꼈고, 하나님께서 제게 뭔가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한국과 일본이 으르렁대고 있나?' 그런 의문을 갖고 영화를 제작하게 됐어요."

영화를 만들 때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을 전달하는게 기독교인 영화 감독의 자세라고 생각했어요. 선교사로 10년을 살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한 일의 밀알이 된다'

는 생각으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지금 예수보다 민족적 감정, 이데올로기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적어도 교회는 세상이 어떠하든 끊임없이 용서하고 화해하고 손을 내미는 것을 추구해야지요."

- 용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헨리 나우웬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사역으로 '환대'를 꼽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데, 피해자가 완전히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가해자 입장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죠. 너무너무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를 거쳐야 건강한 이룰 수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것인가 상처 입은 피해자가 될 것인가,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예수

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통해 치유가 됩니다. 저 역시 상처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처를 준 사람이 제게 사과를 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해서 제가 영원히 상처 입은 피해자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마저 일본을 용서하지 못하면 안타까운 일 이죠."

- 영화 개봉일이 원래 올해 봄이었던 걸로 아는데요.

"개봉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나름 최선을 다했고, 3월에 개봉하려 했는데, 올해 들어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영화들이 개봉을 하면서, 영화를 받아주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8월로 미뤘는데, 이번에 또 사건이 터졌죠. 조금 충격을 받긴 했지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원해서 만든 영화이고,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어요."



이성수 감독. ©김신의 기자

- 지금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영화가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니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뷰티풀 차일드' 때도 그랬어요. 미국과 한국의 교회 목사님들께 무료로 DVD를 다 보냈죠. 지금까지 한국에서 50여 개 교회에서 상영회를 했지만 생각처럼 봄이 일지 않았어요. 또 여러 아이러니한 일들이 있었죠. 이건 제가 알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9월부터 12월까지 일본 투어를 하려 해요."

기독교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을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용서지요. 십자가에서 죽는 게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세상에서도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이들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더 큰 상급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 나라, 면류관,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어려운 때일수

록 더욱 목소리를 내야지요. 영화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주제에 대한 노래가 나와요."

- 상영회를 통해 영화를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일본 사람들이 보면 이 영화를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에 대한 팩트를 이야기하기 때문이지요. 자신들이 가해자라는 것을 반박을 못 합니다. 그러나 용서를 위한 끝 없는 행위가 이어지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화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했어요."

한 번은 도쿄에서 일본 선교사 열다섯 분을 모시고 상영회를 가졌어요. 영화를 보고 두 분이 '이건 일본에서 상영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다른 분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 계시던 모든 분이 '힘을 모아서 이 영화를 일본에 보급하자'고 결론이 났어요.

감사한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개봉할 수 없는 영화지만,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칭찬을 하세요. 언젠가 가치를 인정 받을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죠. 양극단에 있던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거듭난 우리의 정체성은 피스 케이커가 되어야 해요. 사명감을 갖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남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아야지요.

일본교회가 그런 면에서 성숙합니다. 오야마 레이지 목사 등 일본 목사님들이 3.1 운동 100주년에도 사과를 했어요. 피해자가 '됐다'고 할 때까지 끊임 없이 용서를 구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은 '우리가 꼭 사죄를 받아야 한다고, 당신들이 우리에게 꼭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셨죠.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양쪽에 다 있어야 해요."(계속)

김신의 기자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여행

성도간의 교제, 단합, 힐링을 위한 시간!

교회 맞춤형 힐링 여행

교회 상황에 맞추어 원하시는 날짜, 인원에 맞게 여행 플랜을 드립니다.



성도간의 교제의 시간으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함께 하는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운전하기 어려운 시니어들을 위한 편안한 여행이었습니다.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일상 여행이었습니다.

기독일보 신문사가 주최하는 여행이라 믿음이 가고 안전한 여행이었습니다.

- 여행 디녀오신 분들의 소감

\$99 8월

역사 속 추억 여행

유람선 포함 8월 3일(토)당일

에로우헤드 호수와 맥도날드 시작 점을 찾아

L.A.-맥도널드 역사 박물관-럭시뷔페-에로우헤드 호수 유람선-L.A.



\$190

노동절 연휴 특선

9월 2일(월)당일

카타리나 섬 추억 여행

유리 바다 보트, 섬드라이브 포함



\$99 9월

대추나무 가을 여행

페달 보트 포함

9월 21일(토)당일

실버우드 레이크 보트타기 와 대추 따리기

실버우드 레이크 [페달 보트 타기]-대추농장[BBQ 파티] & [대추 따기]



추억 만들기 단풍여행

비숍 단풍

\$199

10월 10일(목)

1박2일 Lake Sabrina
Mammoth Lakes (숙박)
June Lake



천 오백만불
보험가입



한국수출 1만병 기념 특가세일



Dietary Supplement

햄프함초환

대마추출 건강기능식품 SUPERFOOD PROMISE

햄프함초환은 예고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증, 중풍, 심장병, 치매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탁월한 건강식품! 당뇨 탈출, 숙변제거의 특효!

신이 내린 항암식물!

Cannabinoids

대마추출물 Hemp Oil

많은 질병에 사용되는 유명한 자연치료제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칸나비노이드를 자극해 염증을 줄여주어 암, 뇌전증 치료와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GLA는 미국암협회가 강력 추천하는 항암 식품입니다. 대마식물에서 추출된 CBD는 중독성이 없으며 환각성을 유발하는 THC성분이 없습니다. 만성통증, 불안증 등 다양한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연구결과로 건강과 웰빙세계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수출 1만병 기념 특가세일

햄프환 구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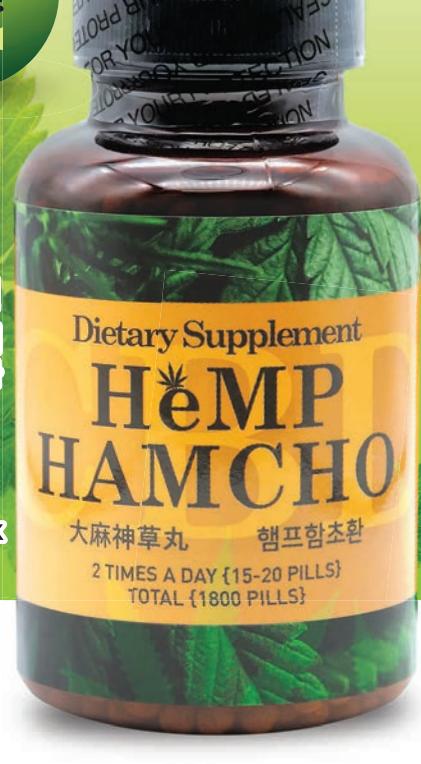
소금 or 함초 1병 선물

1,800 환

\$250 +Tax

\$190 +Tax

MANUFACTURED IN THE USA



함초는 어디에 좋은가요?

① 높은 영양소의 보고

90여 가지의 바닷물 속 좋은 미네랄 성분이 그대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② 장에 좋다

함초는 장운동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 변비를 해소하고 장내에 쌓인 숙변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장내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능도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전반적인 장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③ 심혈관에 좋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과 혈관의 지방질을 배출해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④ 당뇨에 좋다

함초는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해주며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 당뇨를 예방하고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⑤ 간에 좋다

함초에 들어있는 콜린은 지방간이나 간경변 등과 같은 간질환을 예방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⑥ 항암에 좋다

함초에 풍부한 게르마늄은 항암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통해 함초가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을 예방하는데 크게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보고 되었습니다.

⑦ 식유섬유가 많다

함초 100g에는 약 7~8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시금치의 10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는 혈당조절과 체중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⑧ 칼슘이 많다

함초에는 우유의 2배가 넘는 양의 칼슘이 함유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경기력 여성과 노인들의 골다공증 예방, 전반적인 뼈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그 밖에도 항산화, 피부미용, 두뇌 활동 촉진 등이 있으며, 일본 오하라신장 난치병연구소 이토 소장의 보고서 '놀라운 함초의 효능'에 항염증, 항균, 갑상선 기능 증진, 기관지 건강 개선, 근육통 완화 등의 효능이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Low Sodium Salt 天然 低鹽
BAJA SEA SALT
바하천일염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친환경 천일염으로 최고의 품질과 Kosher(코셔) 인증을 획득하여 미국과 유럽이 인정한 제품입니다.

바하천일염 4대 미네랄	일반 가공소금이 문제! (장제염 - 꽃소금, 맛소금)
나트륨 Na : Cl	나트륨 (Na)
칼륨 K : Cl	의사들이 소금을 먹지 말라는 이유는 나트륨만 들어있는 소금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칼슘 Ca : Cl	
마그네슘 Mg : Cl	

바하 천일염 구입시
소금 or 함초 1병 선물

\$30 +Tax

99.70% 미네랄 소금
최상급 천일염, NO 중금속
NO 간수



바다의 산삼!
BAJA GLASSWORT POWDER

바하함초분말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함초!
바하함초분말로 가족의 건강을 행기세요!

풍부한 식이섬유
아미노산, 무기질
해양미네랄 함유!!!

바하함초분말 구입시
소금 or 함초 1병 선물

\$30 +Tax



*E.UM Cafe (이음카페)

☎ (213)386-3896

바하천일염, 바하함초분말
도소매 판매합니다.



CBD BAJA HAMCHO Inc.

☎ (213)434-1170, (213)605-2772

www.hempbiouusa.com hempbiouusa@gmail.com

3020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기독일보와 함께 하는 꿈의 성지순례

더 이상 기회를 놓칠 수 없다!

11박
12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등인이 되라"하신 주님의 명령을
다시금 부여 드리고 성묘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당신!!!
이스라엘 단기선교 기간동안 예배와 기도를 통해 뜨거운 회개와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단기선교 팀원 모집

믿을 수 있는 현지선교사의 인솔! 이스라엘 성지를 여행하면서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일 시

2019년 9월 30일(월) ~ 10월 11일(금) 11박 12일

대 상

목회자 및 평신도(장로, 권사, 집사, 일반성도 등)

접수마감

2019년 8월 10일(토) 접수시 \$1,000 디파짓

모집인원

40명 인솔 : 현지선교사 (GMS 소속, 강태윤 선교사)

회 비

\$2,700 (비행기표, 숙식 포함) LA 출발 가격, 타주 출발시 항공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선교일정 및 문의사항은 기독일보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주관 : 기독일보(사업본부) T.(213)739-0403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 BIZPOST GROUP, 한우리여행사

